



보도 일시	2023. 1. 31.(화) 15:00	배포 일시	2023. 1. 31.(화) 8:30
담당 부서	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정책과	책임자	과장 김정균 (042-481-5168)
		담당자	사무관 강희만 (042-481-5429)

국민·기업과 함께하는 지식재산 현장소통!

- 1.31(화) 특허청·삼성 지식재산 분야 간담회 개최 -

- 특허청(청장 이인실)은 1월 31일(화) 오후 3시 삼성전자 연구개발(R&D) 캠퍼스(서울 서초구)에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삼성그룹 지식재산 담당 임원(김유석 부사장 등 7명)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.
 - 이번 간담회는 특허청이 추진 중인 ‘국민·기업과 함께하는 현장소통’의 2023년 첫 번째 간담회로서, 현장의 목소리와 다양한 애로·건의사항 등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.
- 삼성 측은 반도체·디스플레이·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 관리전략을 소개하면서, 증가하고 있는 특허관리전문회사(NPE)의 침해소송 및 해외 기술유출 등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을 요청했다.
 - 이에 특허청은 해외 특허관리전문회사(NPE)와의 특허분쟁시 우리 기업 지원 방안을 안내하고, 원천·핵심 특허를 조기에 확보하고 해외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퇴직 기술연구인력의 특허심사관 채용 계획을 소개했다.
- 이인실 특허청장은 “점차 심화되고 있는 세계적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 첨단전략기술 경쟁력의 해답은 지식재산에 있다”고 강조하면서,
 - “특허청은 고품질의 지식재산 심사·심판 서비스를 제공하고 핵심기술의 유출방지 기반을 조성하는 등 우리 기업이 지재권을 기반으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”고 밝혔다.